

# 우주의 에너지...길상 행복 상징

월 2회 연재

##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강화 보문사 미애관음상의 가슴에 새겨진 권자.

예로부터 권자는 부처님의 성덕(聖德)과 길상(吉祥)을 뜻하는 표상으로 전해져왔고,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자로 여겨져 왔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도 권자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태양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흐르는 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동글게 순회하는 모양의 형상이라고도 하며, 신령한 빛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동·서 고금을 통해 의견이 분분한 권자는 산스크리트어로 Svastika 팔리어로 Svarhika라고 불리며, 길상·유락(有樂)·덕상·행복 등으로 풀이되어 왔다.

경전에서 권자의 표상은 《화엄경》, 《수행본기경》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화엄경》 권48권에는 "여래의 가슴에는 훌륭한 분의 특징인 권자 모양이 있다. 이것을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고 부른다. 조화가 자재로운 '바니보우'로 집합되어 온갖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갖가지 광명을 동글게 뿜어내면서 온 누리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요음을 내어서 온통 세계를 진리의 바다처럼 넘실거리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97가지 훌륭한 모습 가운데 53번째의 특징으로 기록된 것이다.

인도의 경전을 중국으로 전파했던 역경승이나 주석가들을 통칭해 '만(凡)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권자 표상을 최초로 언급한 스님은 중국 당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화엄학의 대가 혜원 스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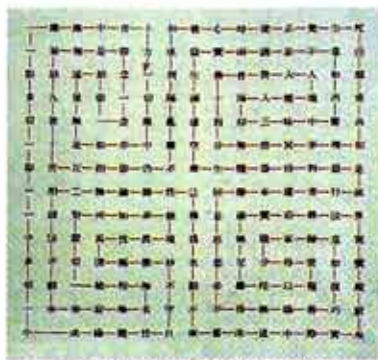
혜원 스님은 《화엄경》의 범본과 한역본을 대조한 뒤, '권자는 덕 있는 사람의 상(像)이요 길상만덕(吉祥萬德)이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행본기경》에서는 이 표상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권자가 부처님의 성도실화를 통해 불교와 최초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 나온다. 이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수행할 때 풀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방석 재료가 비로 일의 모양새가 권자인 길상초였다는 것이다. 이후 권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법주사 수정교, 난간의 권자문양이 세간과 출세간을 잇는 교량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권자는 슈리밧사로 불리는 기본형 외에도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좌로부터 슈리밧사, 난디아바타라, 스바스티카, 푸르나가타 형상.



◇의상스님이 만든 화엄일승법계도.

또 권을 팔길상인(八吉祥印)의 하나로 여겨왔던 대승불교 시대의 수행승과 불자들은 부처님의 머리·가슴·손·발 등에, 법종과 같은 정염물에 즐겨 새겨왔다. 또 깃발과 난간 그리고 향문에도 권자를 새기며, 그 속에 가없는 심신과 구법(求法)의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동남아 남방불교권 사찰이나 불교공구에서는 권자 표상을 찾아보기

가 있다. 첫째가 길상해운을 뜻하는 일반형으로서의 슈리밧사(shrivatsa), 둘째는 오른쪽으로 순회하는 머리칼라 모양을 한 난디아바타라(nadyavata), 셋째는 행복이 있음을 상징하는 스바스티카(svastika), 넷째는 물병모양을 한 푸르나가타(purnagata)이다. 이들 중 마지막 푸르나가타를 제외한 세가지는 불경 중에 모든 부처님의 가슴 또는 머리에 나타난 모발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불상의 미간에 표시되는 백호(白毫) 털을 의미했던 것과 함께 고대 인도인 또는 서역인이 지녔던 풍토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만당(卍)의 활용

1930년 5월 결성된 청년불자들의 항일 비밀결사 조직체, 20년대 결성된 조선불교청년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동지단결의 부재' '통일정신의 빈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김법린, 이용조 등이 결성했다.

권당의 활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

## 서양에선 "생명·자비·광명·자유" 대승불교권 사용...남방엔 없어

### 부처님 성도당시 깔고앉은 길상초 잎모양서 유래

했으며, 대신 동근 법륜(法輪)을 불교의 상징 표시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권자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권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불교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원초적 에너지를 담은 신성(神性)'으로서 권자를 풀이하고 있다. 생명과 운동으로 설명되는 이 신성은 화오리바람과 같은 권자의 모습에서 연상할 수 있다. 권자의 책임이 화오리바람을 닮아 있는 것은 우주적 에너지의 운동 법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권자는 시원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상징한다.

또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권자의 가운데 교차점을 때려내면 영어의 'L'자가 4개 나오는 것에 착안, 생명(Life), 광명(Light), 자비(Love), 자유(Liberty) 등을 뜻하는 머릿글자로 해석하고 있다.

### ■권자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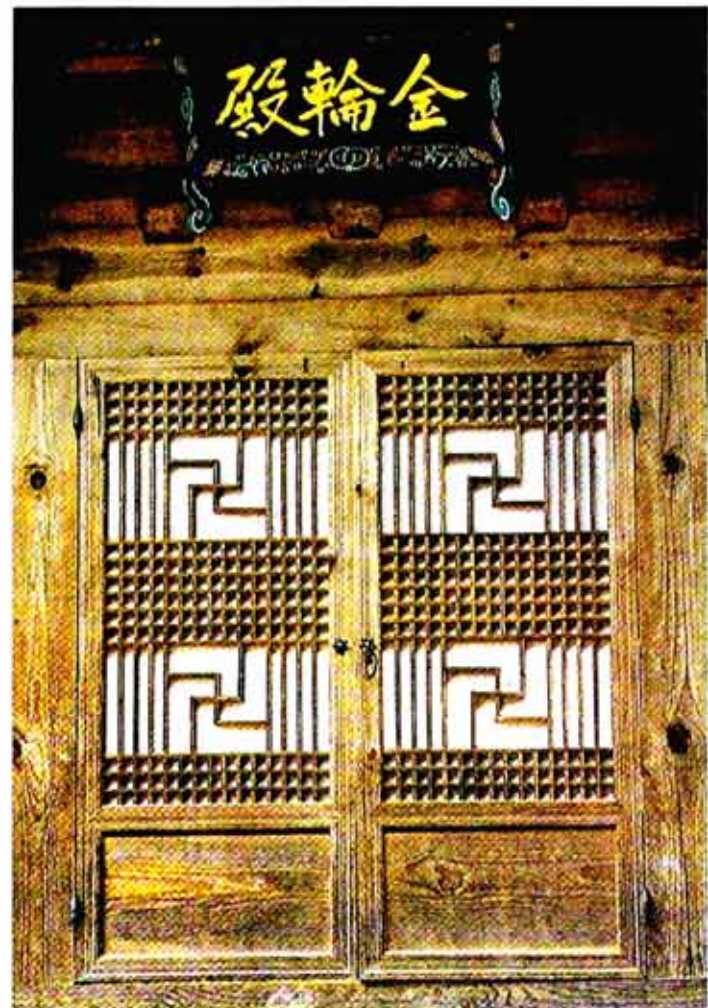
권자는 그 변형을 포함해 네가지 형태

명으로 전환한 것, 이것은 청년조직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낳았고, 이를 기점으로 '통일정치·사법개정·사회재건 통합' 등 당시 불교계 현안에 적극 참여한다. 또 산간은 은둔해 온 불교를 사회적, 대중적 불교로 되살리는 현대적 포교와 불교 교육운동에도 앞장섰다.

김광식박사는 《한국근대불교사 연구》에서 권당은 청년불자들이 청년운동 및 불교계 전반의 교정을 개혁하고 한국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전위조직체"라고 지적했다.

### ■보살할 가슴에 각인

불상의 앞가슴에는 대부분 권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식가모니 불상이나 보살상의 가슴에 부처님의 마음을 찍는 불교 도상에 유래된 불심인(佛心印)에서 비롯됐다. 즉, '부처님의 마음이 이 한 곳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불자들의 신앙의 표상이다. 그 당시



◇상주 남장사 금명당의 권자 문. (사진·권조스님)

불자의 신심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329호 백제여래좌상의 가슴에도 어김없이 권자가 그려져 있다. 군수리 폐사지에서 출토된 이 여래좌상은 백제가 부여로 천도하고 불교를 크게 일으켜 정치적·문화적 전성기를 이루었던 6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동근 갖에 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백제 전형 양식의 불상이다.

### ■화엄일승법계도

신라 의상스님(625~702)은 중국 당의 지엄에게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7언 30구 시(詩)에 담아 '화엄일승법계도'를 발표했다. 화엄일승법계도란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된 일승의 진리로운 세계의 모습'이라는 뜻.

법계도에 사용된 210자는 처음에 법(法)자로 시작하여 중간에 중(衆)자를 위쪽으로 올리고, 끝을 불(佛)자로 휘감았는데, 그 글자의 줄아래가 만(卍)의 형상으로 배열되어, 중중무진(重重無盡)한 화엄 법계를 상징하고 있다. 문자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법명속의 권자

법명에 권자를 사용한 스님들은 흔하지 않다.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스님은 조선 초 민우(民雨·1357~?) 스님과 만해(萬海·1879~1944) 스님이다. 민우스님은 고려말 선승 구곡각운(龜谷覺運)의 제자이다. 불교와 유교 경전에 남다른 깊이가 있어 조선 초에는 집현전·학사들이 찾아올 정도로 불교와 유교계의 시교가 됐다. 시와 글씨에도 능했던 스님은 《천봉시집》을 남겼다.

만해스님은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자, 《남의 침묵》을 쓴 민족시인 한용운의 법명이다. 만해스님은 불교가 일제에 예속되어 버린 이후에도 정교(政敎) 분리, 사찰령 폐지, 불교청년운동 등을 통해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데 경생을 바쳤다. 그의 저서 《조선불교 유신론》에는 만해스님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 스님은 '교리 및 경전의 민중화와 제도 및 재산의 민중화'를 주장하였고, '민중의 행복을 증진하는' 민중운동을 역설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천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1) 지형 전선 제작, 판매입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울), 용주사(화성군), 금강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깃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성군) 그외다수

###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1) 지형 케이를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 인 등

※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 천불전

조성합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송곡동 180-1 천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크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1) 성지관음회 (회장 배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수 밖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형세된 기(氣)를 탈취시키고 길하게 사안이 화평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한란, 가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의 영향이 완전히 차나오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선물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